

2025 09

통권 305호

티옴

안동교구 사람 사는 이야기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contents

- 01 마음이 머무는 자리 1p
- 02 소공동체 기도 2p
- 03 2025년 교구 실천사항 3p
- 04 반모임 길잡이 4p
- 05 교구 신앙의 역사 이야기 6p
- 06 청년-미래세대에게 듣는다. 8p
- 07 건강한, 신앙생활 10p
- 08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12p
- 09 공소 탐방 - 낙동공소 14p
- 10 찬미받으소서 퀴즈 16p
- 11 우리 생명 이야기 18p
- 12 소개합니다 - 교구역사관 20p
- 13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22p
- 14 책속의 향기 24p
- 15 부르심
- 16 사제의 단상 26p
- 17 신학교에서 온 편지 28p
- 18 그분과 함께 30p
- 19 알림 32p



'티움'은
개인과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의 짝을 티우고
열매맺도록 도움을 주는
가까운 벗이 되고자 합니다.

퍼넌곳 천주교안동교구사무국
주소 36678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77
전화 054.858.3114
홈페이지 <http://www.acatholic.or.kr>
표지사진: 손영숙 임마누엘라
(송현동 본당 우리농 매장 봉사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룬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15

성경 말씀은 휴천동성당 유경희 세실리아님께서 자필로 써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서 40주년을 함께 통독하면서 마지막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성당의 어떠한 간부나 직책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거절하지 않고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원하는 곳 어디서든 순명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기도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눈물을 나누셨던 주님.

저희도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신앙과 고통과 기도를 나누면서

참된 형제애를 느끼고 성령 안에 일치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생명이 저희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실천사항 1

“**생명의**
생업밥상을 차립시다”

교구

- 교구장 농민회 분회 방문
-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권유
- 생명 농산물 이용에 대한 지속적 교육
- 생명농업 마중물 가농소 입식운동 지원

본당

- 농민을 위한 기도
- 본당과 공소(분회)의 지속적인 자매 결연
- 본당 행사 때 우리농 매장 적극 활용
- 공소나 지역에서 생산한 나눔 장터, 텃밭 가꾸기

가정

- 농민을 위한 기도
- ‘우리 농산물 < 지역 농산물 < 생명 농산물’을 이용한 밥상
- 밥상 손수 차리기(배달 음식 줄이기)
-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육식 줄이기

농민

- 탄소 중립을 위한 농사(자급 퇴비, 비닐 사용 줄이기)
- 자연 환경과 농촌 지키기 실천
(제초제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 실천사항 2

청년을 위한 청(聽)년
(A year of Listening for youth)

- 안동교구 청년을 위한 기도
- 각 가정, 본당의 청년 발굴
- 지구 청년 담당 사제 선정
- 지구 차원의 청년 모임 활성화
- 청년과 사제, 수도자와 함께 하는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누기

「찬미받으소서」가 공동의 집을 지켜야 할 환경 보호의 대전제를 다뤘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기후 위기의 위험성과 인류 위기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이를 읽고 나눔으로서 생태적 회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1단계 (기도)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소공동체의 기도(2쪽)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2단계 (독서)

“어느 분이 말씀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읽은 후)
“다른 분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묵상)

잠시 침묵 중에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분)

4단계 (선포)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두 번씩 말합니다.

5단계 (나눔)

각자 ‘마음에 와 닿은 말씀’에 대한 생각과 체험을 나눕니다.

6단계 (활동과 실천)

1.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2. 본당 소식 및 기타사항

7단계 (기도)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행자가 마무리 기도를 한다.)

기후 위기에 관한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Laudate Deum

제1장 피해와 위험

17. 몇몇 종말론적인 진단들은 이따금 비합리적이거나 충분한 근거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점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관성적인 요인들 때문에, 작은 변화들이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련의 사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언제나 이미 너무 늦습니다. 어떤 개입도 이미 시작된 과정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빙하의 감소, 해류의 변화, 열대 우림의 파괴, 러시아 영구 동토층의 해빙처럼 기후를 ‘민감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동교구 설정 배경과 그 과정”(2)

신대원 요셉 신부 (안동교회사연구소장)

1958년 안동감목대리구를 대구교구로부터 위탁받은 파리외방선교회의 선교사들은, 사실 조선에 입국하여 극심한 박해 중에도 어렵게 포교 활동을 펴서 널리 복음을 전파한 프랑스의 선교활동 단체이다. 박해 때마다 주교와 신부들은 수많은 신자들과 함께 순교하였지만, 끝까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온몸과 마음으로 희생하였다.

1886년 한불수호조약 후, 조선사회는 차츰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나, 1910년 힘의 논리에 의한 일본제국의 강제적인 한일합방으로 교회는 또다시 직접, 간접으로 수난을 당해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파리외방선교회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1942년 방인 신부인 노기남 바오로 신부를 서울교구장으로 취임시키면서 교회의 권한을 방인 사제들에게 이양하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1948년 충남지목구, 즉 대전교구가 설립되자 교회는 이 지역을 파리외방선교회에 위탁하여 사목하게 하였다. 1965년 대전교구장 라리보 주교는 곧 사임하고, 방인 사제였던 황인성 베드로 신부를 주교로 임명되게 하여, 대전 포교지를 한국인들에게 넘겼다.

안동교구가 설정 될 무렵, 안동교구의 관할 지역은 안동감목대리구역인 안동, 영주, 영양, 봉화, 예천, 영덕, 청송, 포항과 영일 등이었다. 하지만 이후 영일과 포항지방은 사정에 의해 대구교구로 넘어가게 되었고, 대구교구 지역이었던 의성지방과 왜관감목대리구 지역이었던 상주와 문경지방이 새롭게 안동교구로 편입하게 되었다.

1966년 대구교구와 왜관 감목대리구는 20년간 새 포교지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처음 대구교구에서 교황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상주, 문경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당시 안동 감목대리구장이었던 구인덕 신부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문경과 상주지방을 새로운 교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제안을 교황청에서 받아들여 새 교구 관할지역에 문경과 상주지방이 극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경과 상주지역에서 사목하던 왜관대리구 소속 신부들은 왜관 베네딕도 수도회 본원으로 떠났다. 다만 함창본당에서 사목하던 왕묵도 레지날도 신부와 화령본당에서 사목하던 송만협 요셉 신부만 안동교구와 베네딕도 수도원의 합의로 몇 년간 더 남아서 본당 사목을 담당하게 되었다. 동시에 당시 원주교구 관할지역이었던 울진지방이 새롭게 안동교구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게 되어 명실공히 경상북도 이북 지역이 새롭게 설정될 신설 교구인 안동교구 관할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1969년 5월 2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을 사목할 안동교구를 대구교구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신설 교구로 설정하고, 이를 사목할 초대 교구장으로 당시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이며, 대전교구 상서국장 겸 대흥동본당 보좌신부였던 두봉(杜峰, Rene Dupont, 1929-2025) 신부를 임명하였다. 두봉 레나도 신부는 주교임명을 받고 주교직 수락을 사양하였지만, 주한 교황대사관에서는 1개월 동안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두봉 신부가 한 달 동안의 기도와 묵상 끝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교직을 수락하였다. 이로써 주한 교황대사관에서는 6월 21일에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공포하게 됨으로써 안동교구는 자연스럽게 대구교구와 원주교구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교구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음 호부터는 신생 교구로서의 출발선상에 선 안동교구를 소개해볼까 한다.

229차 창세기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을 다녀와서

안동교구 가톨릭청년성서모임
태화동 본당 최한나 한나

저는 29살 태화동 성당에 다니는 최한나 한나입니다. 저희 가족은 몇 대째 천주교 신자로 지낼 만큼 천주교 신앙에 대해 믿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기 전부터 천주교 신자였고, 제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 천주교라는 종교를 바꿀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일상에서 주일은 성당이었고 모든 일에 하느님을 찾고 있었으나, 제 마음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느님을 만나며 살아갔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최대한 악하게 살지 않는 선에서 티지 않게 조용히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다 보니 성당도 회사 다니듯, 일상의 한 부분인 마냥 약 28년 동안 다녔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미사 안에서 복음을 듣지만 매일 새로웠고, 듣고 또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미사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노라니, 들리는 복음 말씀은 늘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창세기 모임’이라는 것을 서동호 신부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성당에 대해 물어보거나 성경에 대해 물어봤을 때 피하는 일을 줄여보자는 마음으로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대구대교구에서 시행하는 ‘창세기 파스카 청년 성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고 싶다’ 보다 우리 창세기 반을 지도해주신 선생님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향적인 사람으로 3박 4일 동안 모르는 사람들과 모이는 것조차 불편하고 어색하여, 모임 입소 전까지 취소를 고민하다가 끝내 참여하였습니다. 창세기 연수 모임에 처음 입소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과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아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저녁 미사 안에서 각자 포옹을 하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는 도중,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하느님이 만드신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손수 빚은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하셨는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각기 다르지만 각자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른 이들 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하느님을 찾지 않아 하느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항상 저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오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고 싶어 나눔을 써 보았습니다. 각자 마음 속에 계시는 하느님은 다를 수 있으나,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 의지하며,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저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당신 자체가 사랑이심을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그분께서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고 찾으면,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제가 느낀 이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느끼게 하시어, 하느님 사랑 안에서 기쁘고 떳떳하게 살며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아멘

천국의 나무

박인수 베네딕도 한의사
용상동 본당

천국의 나무(Tree of Heaven)라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 있다. 학명이 Ailanthus altissima인 가죽나무다. 그런데 성서를 펼쳐서 이 잡듯이 다 뒤져봐도 이 나무가 그 이름을 갖게 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식물을 미국으로 판매하던 회사가 마케팅(Marketing) 목적으로 갖다 붙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나무’라는 생뚱맞은 영어 이름을 가진 이 나무는 가짜 죽나무라는 뜻에서 온 이름이며, 가죽나무(假僧木:가짜 중나무)라고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 강인한 생명력으로 번식력이 좋고 공해에도 강하며 크게 자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에 가로수로도 많이 식재한다. 성장이 빠르고 재질도 강한 편이라 목재로 사용하는데 뿌리껍질은 저근백피(樗根白皮)라고 하는 한약재로도 쓴다. 소태나무과에 속하여 맛이 쓰고 청열해독(淸熱解毒)과 삼장지혈(澀腸止血), 살충(殺蟲)효과가 있다. 장염으로 이질 설사가 오래되어 혈변을 보는 경우나 자궁출혈이 있을 때 그리고 여성의 냉 대하와 각종 피부질환에도 사용하면 치료약으로 효과가 좋다. 하지만 그 짙은 맛이 쓰고 냄새가 역해서 도저히 나물로 먹을 수는 없다. 이상하다! 가죽나무의 새순이 가죽나무가 아니면 그럼 진짜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정답은 멸구슬나무과의 참죽나무(Chinese mahogany)의 새순이 가죽나무이다. 학명은 Toona sinensis인데 그 어린 나무 잎을 씹으면 참기름처럼 고소하면서도 진한 껌잎향이 난다.

그런데 향이 특이하여 ‘지옥의 향과 천국의 맛’이라는 두리안 못지않게 호불호가 심하다. 그런데 왜 참죽나무의 새순을 굳이 가죽나무물이라고 했을까? 이런 저런 설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한다.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지역에서는 진달래와 철쭉을 먹을 수 있는 참꽃과 못 먹는 개꽃으로 부르듯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도 그 잎을 나물로 해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했다. 그래서 ‘가죽나무’로 먹는 참죽나무를 가죽나무라 하고 못 먹는 가죽나무는 개가죽나무라고 불렀다. 고구마를 감저라고 하고 감자를 풋감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다음으로는 참죽나무는 채식을 하는 스님들이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진짜 중나무(眞僧木:진승목)이라는 뜻에서 ‘참죽(眞樗:진저)나무’로, 먹을 수 없는 가짜 중나무라는 뜻에서 ‘가죽(假樗:가저)나무’로 불렀다. 이러니 어느 것이 진짜 가죽나무인지 헷갈리게 된 것이다. 어쨌거나 가죽나무는 독도 있고 맛이 없어서 잎을 못 먹고 뿌리만 한약재인 저근백피로 쓴다. 반면에 참죽나무가 우리가 먹는 가죽나무이다. 중국에서는 향긋한 봄 향기로 미각을 자극한다하여 향춘(香椿)이라고 했고 순을 데친 걸 춘엽채(椿葉菜)라 하여 봄의 최고 미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순으로 쌈을 싸먹거나 장아찌를 담그기도 하는데 절에서는 참죽튀각(참쌀풀로 튀김옷을 하여 기름에 튀겨낸 것)을 만들어 고급 음식으로 즐기기도 한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귀한 보배로 치는 나무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묵상-만남이라는 신비



잠에서 깨어나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요한 9,5)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태생 소경과의 만남은 이 사실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하느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 능력을 믿는다면 눈먼 바리사이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참에서 깨어나는 생활, 죽음에서 일어나는 생활은 부활을 일상에서 사는 ‘눈을 뜨는 생활’이다. 이 생활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두루 비추는 일에서 시작된다. 주위를 보지 못하고 이웃과 세상에 눈을 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눈뜬 소경’이 되고 말 것이다.

만남이라는 신비,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지음

남성동 본당 낙동공소

Q : 우리 공소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지 기억나는 이야기들이나 지금의 공소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우 1 :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신자 수가 4~5명 정도입니다. 신자가 많았을 때는 본당에서 신부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셨는데 시골에 대접할 것도 없고 해서 호박잎 찌고 고추 같은 것들로 이것저것 소박하게 만들어 대접을 하면 신부님들께서 기쁘게 드셨습니다. 그때는 매 번 식사도 함께 했는데 그런 기억들이 참 좋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오늘은 뭐 맛있는거 하는지 물으며 참 정겨웠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인간미가 넘치는 곳이었습시다. 우리 공소는 1959년도인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몇 몇 분이 모여 어느 한 가정에서 예절을 바치다가 5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교우 2 : 저는 성당에 늦은 나이에 발을 들여 나오기는 잘 나오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성당에 와서 같이 웃고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기도문을 잘 외우지는 못해도 공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우 3 : 우리 공소가 옛날에 사람이 많을 때는 봉고차를 마련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씩 성지순례도 가고 야유회도 다녔습니다. 주일에 예절을 마친 후 매번 강에 솔을 가지고 가서 하다못해 닭이라도 삶아 먹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설날이 되면 윷놀이를 하고 작은 선물도 서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그땐 신자들이 많아서 공소 생활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교우 4 : 우리 공소는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한 4, 5년 전부터 요양원에 가시더니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은 신자 수가 급격이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공소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공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우 5 : 저는 우리 공소에 온 지 17년 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공소 생활이 처음인데다 환경이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지금은 미운정 고운정으로 우리 공소 식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공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6 : 저는 본당 레지오 단원으로 매 주 공소에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본당 레지오 Pr. 단원들은 본당 소속인 4개 공소에 매주 방문하여 공소 예절을 합니다. 저는 주로 이곳 낙동공소에 오는데 최근에 와서 신자 수가 갑자기 줄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픈 이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자식 따라서 동네를 떠난 사람도 있다 보니 한 20명 되던 신자가 지금은 다섯 명 정도입니다. 귀농자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도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90항 196항

- 190항** ()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틀 안에는 자연의 순환, 자연의 쇠퇴와 재생의 시기, 또는 인간의 개입으로 심각하게 변형될 수 있는 생태계의 복잡함에 대한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 191항**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증진 시키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기적으로 몰 때 또 다른 경제적 이익을 낳을 수 있는 투자가 됩니다.
- 192항** ()의 다각화는 인간 지성이 창작과 혁신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는 인간의 고귀함을 다시 피워 내는 ()이 될 것입니다
- 193항** 기술적으로 발전한 사회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좀 더 () 생활 방식을 실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 194항** 자연보호와 경제적 수익의 (), 또는 환경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단지 불가피한 재앙이 조금 늦추어질 뿐입니다.
- 195항** 기업들은 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계산하여 지불 하며 수익을 냅니다. 공동의 ()을 이용하는 데에 드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다른 민족이나 미래 세대가 아니라 그 이용자가 온전히 부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때에만 ()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96항** ()가 곁여된 경제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제는 현재 위기의 다양한 측면들을 지배하는 다른 논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참된 배려가 없는 논리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없는 논리입니다.

1.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비어 있는 괄호를 채웁니다.
2. 오른쪽 퍼즐 속에 숨어있는 위의 단어들을 찾습니다.
3. 16-17쪽을 사진 찍어서, 사목국으로 보냅니다.
4.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9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목국 전화 054-858-3114, 010-9853-3066

이메일 sa3119@nate.com

보내실 때 정답, 성명, 세례명, 본당명,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세요

나	샘	물	말	스	정	바	람
참	균	자	레	위	치	의	검
치	형	렛	시	아	원	소	의
레	햄	베	이	들	한	장	창
소	유	환	연	윤	이	비	의
방	여	경	필	리	유	소	력
관	산	자	복	적	비	용	량
생	라	원	면	연	탄	환	경

7월 당첨자

김성준 에지노 (계림동 본당)

임정희 엘리사벳 (휴천동 본당)

자속 가능한 지구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한 길 24 - 동 살리기 6 -

김시영 베드로 신부

하망동 본당 주임,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지구가열화를 넘어 글로벌 보일링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유럽, 북남미, 아시아 할 것 없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6도를 넘긴 스페인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40도를 넘나 들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12도에 머무는 영국 또한 35도를 넘는 고온으로 전역에 황색 폭염 경보까지 내렸고, 40도를 넘어선 그리스도 대형 산불까지 겹쳐 최악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50도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137년 만에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뉴욕은 아스팔트가 녹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수온과 상층 고기압이 결합해 폭염과 열대야가 더 길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중해 6월 수온이 26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남해안도 7월 수온이 2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폭염이 폭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 극한의 홍수로 이어지는 복합재해(compound hazard)의 전형적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도 공장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뿜어내고 있으며,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동차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10억 마리의 소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1. 글로벌 보일링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와 농업 전환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5톤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균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사는 한 사람이 내뿜는 온실가스는 아프리카 사람보다 수십 수백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으로 따져도 소득순위 상위 10%가 전체 온실

가스 50%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 소득 순위 하위 40억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12%에 불과 합니다. 2015년 195개국 이 파리협정을 맺은 것이 무의미 할 정도로 온실가스 양은 증가하고 있고, 지구 평균 기온 또한 1.5도를 훌쩍 넘어 2025년 7월 현재 1.64도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둔감하거나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근대문명이 주는 편안한 생활과 욕망의 분출구와도 같은 소비 생활 또한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생태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와 농업의 전환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자연순환 농업의 전환이야말로 글로벌 보일링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대적 삶의 방식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함께 생태문명적 의식으로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생태문명적 전환의 핵심은 똥에 대한 인식의 전환

생태문명적 전환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자연순환 농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보일링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인식만 바뀌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왕겨나 톱밥, 짚만 있으면 대규모 밀집 주거 단지에서도 똥오줌을 수집해서 냄새도 나지 않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가동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온 질 좋은 퇴비로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죽어버린 땅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류 대멸종으로 나아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82억 지구인 모두가 산업 문명을 일으킨 석탄, 석유, gas와 작별을 고하고, 생태적 전환으로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지 않고,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 비닐 제품을 쓰지 않고, 녹색소비를 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박테리아와 동무가 되어 내 가족의 똥과 가축의 똥,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나 전기를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지속 가능한 지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길입니다.

마원공소 종 (일제강점기)

(지름 30cm * 높이 29cm)

마원공소는 오래된 공소로 1958년 문경본당이 세워지면서 본당과 거리가 가까워 공소가 폐쇄되었다. 이 종은 일제 강점기 때 제작되어 1958년까지 사용하던 종으로 안쪽에는 한자로 180이라는 숫자와 16,800ㄴ이라고 먹으로 쓰여 있다. 보통 공소의 종처럼 이중도 장식이 없고 단순하다. 종은 신자들에게 기도시간을 알려주고 전례행사에 신자들을 불러 모으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마원공소는 김천본당의 세례대장에 1899년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엔 오소리골 공소로 올라 있다가 1914년 이후 오서골, 마원리공소와 같이 불렸으나 공평(현, 점촌동)본당이 설립되면서 첫 세례자를 기록한 1923년부터는 마원리공소, 마원공소로 적혀있다. 시골 마을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자들은 공소를 향하고, 기도시간을 기억하며, 신앙이 곧 생활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손영숙 임마누엘라
송현동 본당 우리농 매장 봉사자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 송현성당의 손영숙 임마누엘라입니다. 우리농 매장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좋은 먹거리 나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딸

본당 신부님께서 좋은 먹거리 나눔의 필요성을 느끼시며 우리농 매장운영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쉽지 않았기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주문하고 또 판매하는 일, 재고 물품 관리 등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에 걱정이 앞섰지요. 그러나 저 역시 농부의 딸이고 좋은 먹거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벌써 15년이나 되었네요.

친교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본당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번듯한 매장과 사무실 없이 성당 마당에 중고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 시작했습니다. 좋은 먹거리 나눔이라 할지라도 친교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추울 때나 더울 때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는 참새 방앗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판매가 시작되었고 먹어보니 참 좋다는 반응이 나왔지요. 콩나물도 고소하고 계란도 바깥의 일반 매장 상품과는 달리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는 좋은 평가의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판매량이 늘어났어요. 주로 두부, 계란, 양배추, 콩나물이 많이 판매됩니다. 그래도 생물이란 재고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팔 수 있도록 애씁니다. 마늘은 껍질을 까서 깎마늘로, 열무는 열무김치로, 쪽파는 파김치를 담아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15년 하고 나니 제 손마디가 다 굵어졌어요. 옳은 일 한다

는 자부심과 함께 하느님 일에 당연히 희생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로움

우리농 활동가들은 분기별로 회의해서 생산자 공동체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제초제를 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뽑으니 손이 성한 어르신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저희 본당은 온혜 분회랑 자매 결연을 맺어 봉사를 나갑니다. 피악별에서 감자 캐고 양파도 뽑아 보는 일을 해 보아야 좋은 먹거리를 위한 농부의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몸소 체험하고 나면 가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말이 나오지 않지요. 우리농 농산물이 좋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면서도 가격이 비싸서 일반 농산물을 이용하시는 신자들도 많으신데 가격이 꼭 비싼 것은 아닙니다. 매장을 늘 이용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생명의 밥상

우리 교구 2025년 실천사항이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입니다. 하지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월 첫 주일에는 우리농 농산물로 밥상을 차립시다’ 혹은 둘째 주일에는 ‘육식하지 맙시다’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당에서 음식을 함께 나눌 일이 있으면 우리농 매장의 식자재로 ‘생명의 밥상’을 차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는 성경 구절은 “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비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키 1사 5장 16절)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작은 수고로움과 희생으로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 코너에서는 안동교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은인이나 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신유년에 핀 꽃

황보운 | 140*197 | 344쪽 | 15,000원



세 번 배교한 이존창의 신앙 여정과 심리 변화, 우여곡절 끝에 사제품을 받고 신해 박해(1791)와 신유박해(1801)를 겪어낸 주문모 신부가 쓴 일곱 개의 편지글을 담은 소설로 갈등과 위기, 고뇌와 변민, 용서와 화해, 빠져린 참회의 통곡이 어우러져 극적 긴장감과 재미를 주며 몰입하게 한다. 윤유일, 윤지충, 권상연, 정약종, 최여겸, 이도기, 강완숙, 황사영, 김원삼 등 성직자 영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의 길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뒤엎힌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며,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을 향해 떠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며 계속될 조선 선교의 역사를 예고한다.

“천주가 바라시는 꽃을 피우게. 봄꽃은 묵은 가지에 피고
여름꽃은 새 가지에서 피어나네.
기억하게. 새로 나지 않으면 꽃도 없고 열매도 없네.”

바오로딸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녀들이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전화 054-859-6040 / 목성동 주교좌 성당 입구

부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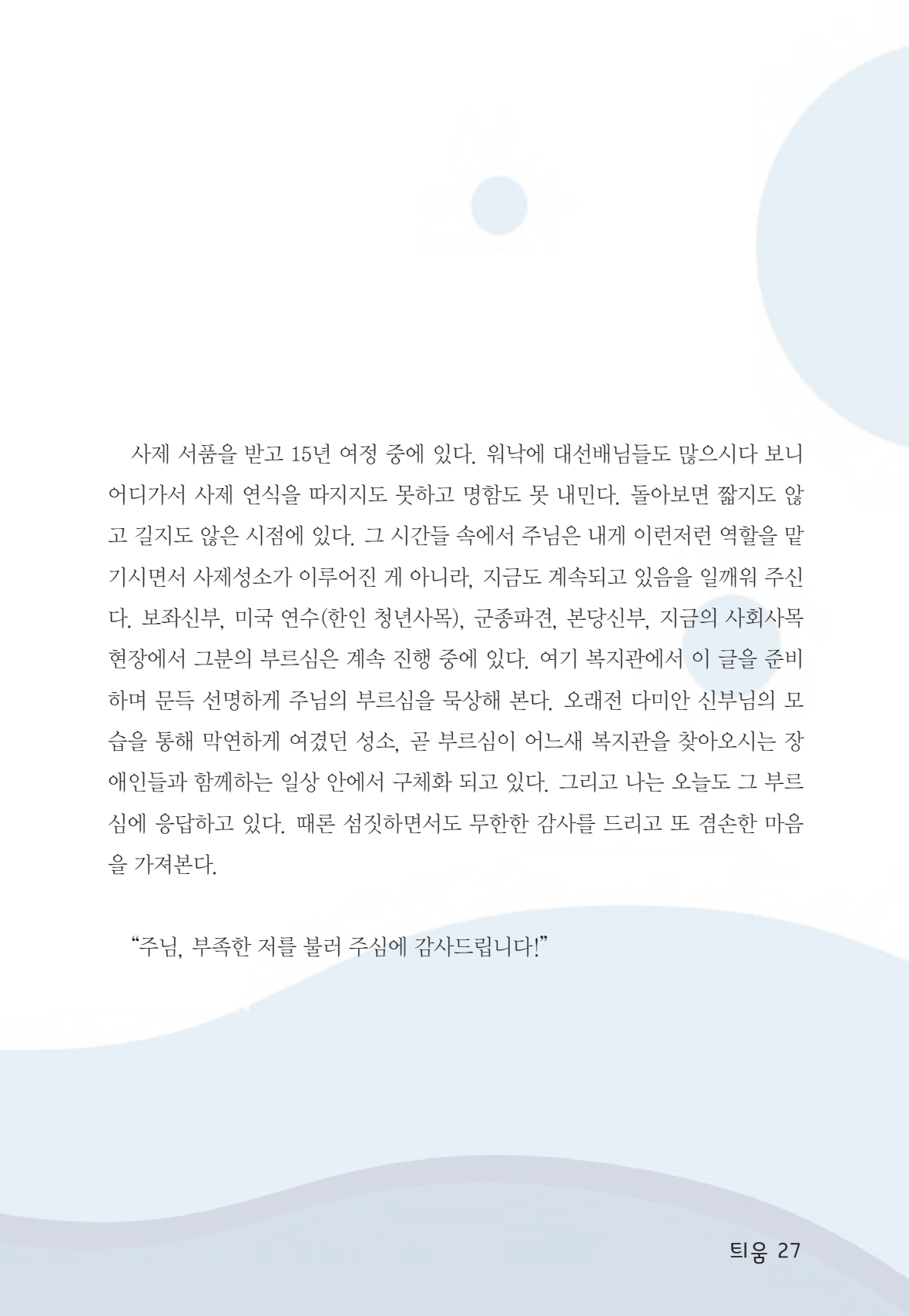


“부르심은 현재 진행형...ing”

이동명 사도 요한 신부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겸 이주민 사목 담당

고등학교 겨울방학 즈음으로 기억한다. 성소자 모임이 있어서 갔던 곳이 (구) 다미안의 집이었다. 중학생 시절에 본당 주일학교에서 봉사활동 차원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서 낯설지는 않았다. 그 당시 모임의 테마가 ‘다미안 신부님’의 삶과 사제 성소였다. 일찍이 한센인들의 치유를 위해 헌신하신 다미안 신부님을 기리며 사제 성소를 체험하는 자리였다.

초등학교 꼬맹이 시절에 머릿속에 각인된 신부님들의 모습은 그랬다. 민주화를 열망하며 대중들과 함께 외치시고, 농민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는 이미지들이다. 그때만 해도 사제의 삶은 나와 멀다고 느꼈다. 장래희망의 목록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사춘기 중학생이 되어서 막연하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을 위할 수 있는 삶이 뭐가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때 어렵פות이 아주 희미하게 사제상을 가슴 안에 그려보았던 것 같다.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탐색하지도 않은 채로 말이다. 지금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난다. ‘그게 시작이었나 보다’ 하고 혼자 키득거리다 큰 숨도 내쉬어 본다. 사제는 제대에서 미사 봉헌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피는 직업이라 생각했었다.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시절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순수한 생각의 자리여서 잠시 그 상념에 머물러 보았다.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제로 살고 있는 내 여정의 첫 출발점이자 부르심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사제 서품을 받고 15년 여정 중에 있다. 위낙에 대선배님들도 많으시다 보니 어디가서 사제 연식을 따지지도 못하고 명함도 못 내민다. 돌아보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점에 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내게 이런저런 역할을 맡기시면서 사제성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일깨워 주신다. 보좌신부, 미국 연수(한인 청년사목), 군종파견, 본당신부, 지금의 사회사목 현장에서 그분의 부르심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여기 복지관에서 이 글을 준비하며 문득 선명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해 본다. 오래전 다미안 신부님의 모습을 통해 막연하게 여겼던 성소, 곧 부르심이 어느새 복지관을 찾아오시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일상 안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 때론 섬짓하면서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본다.

“주님, 부족한 저를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굳이? 그건... 낭만이니까요

김병욱 가브리엘
학부3, 용상동 본당

찬미 예수님! 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병욱 가브리엘 신학생입니다.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9월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아직은 뜨거운 햇살과 무더운 공기로 가득한 7월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지도 어느덧 절반의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학생 신분으로 지내다 보면, 다양한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주로 ‘사제’라는 신원에 관한 질문이 많지만, 간혹 저의 ‘성소’에 관한 것까지 질문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그런 궁금증들을 마주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것에 대한 응답이 어렵다기보다, 제 대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저를 많은 고민과 성찰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어찌면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신학교에서 보내는 담금질의 시간, 교구와 본당의 신학생으로 지내는 날들, 사제의 삶 안에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들 등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왜 굳이”라는 물음은, 사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신앙이라는 가치보다 재물과 명예, 자기 주도적 삶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사제의 길은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1코린 1,23)이라고 이야

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며,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성심을 다하며 사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사제로서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왜 굳이”라는 순수한 호기심 앞에서, 지금의 저는 “낭만”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제약이나 어려움에도 낭만적인 꿈이나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그것은 곧,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굳이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낭만’을 바라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물론 언제나 행복과 자유와 편안함으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도 없는 천치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남겨져 고독해 잠기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걸음처럼 말입니다.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어린 신학생의 작은 응답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응답이 오늘의 저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다시 제게 “왜 굳이”라고 물을 때, 미소 지으며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굳이? 그건.. 낭만이니까요.”



2025년 예비신학생 여름 캠프

7월 19일(토)-20일(주일) 북면성당과 우곡성지에서 예비신학생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20명의 예비신학생과 5명의 신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 물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주일에는 우곡성지에서 칠극(七克)에 대한 설명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예비신학생들이 성소의 꿈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 림

1. 예비신학생 9월 모임

일 자 : 9월 21일(주일)

장 소 : 미정

2.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신청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방 법 : 등록 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공문을 통해 안내 확인.

※ 등록카드 다운 방법

안동교구 홈페이지(두렛배미)- 자료마당 -

서식양식자료실 - 안동교구예비신학생등록카드

3. 성소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안동교구 각 본당 매월 마지막 주일 교중 미사

매주 수요일 교구청 미사

성소후원 회비 납부 현황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납부하신 내용입니다.
정성껏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내 본당		권양일	10,000	이희선	100,000	변우경	5,000
가 은	768,000	김건화	10,000	장준영	20,000	송 경	10,000
계 림 동	507,000	김경란	10,000	장희익	20,000	신미란	10,000
공 검	125,000	김경란	10,000	정경자	20,000	양수모	10,000
목 성 동	1,553,000	김경림	5,000	정재식	50,000	이길선	10,000
문 경	272,000	김경수	50,000	정태진	20,000	이영섭	20,000
안 계	507,000	김근희	5,000	조원준	10,000	전정희	5,000
울 진	755,000	김길자	50,000	최경희	20,000	정옥남	10,000
의 성	2,097,000	김은경	10,000	최영옥	10,000	최은정	10,000
청 송	922,000	김정은	20,000	탁인자	30,000	최인숙	10,000
하 망 동	1,674,000	김현정	20,000	황상호	50,000	현희성	10,000
함 창	60,000	김혜경	10,000			황재해	5,000
		박승철	10,000	월 모 임 편			
교구 내 기타		박종대	10,000	강면식	20,000	성 분 도 치 과	
김정현 신부	10,000	변진의	10,000	김미경	60,000	100,000	
백동수 신부	10,000	변희원	120,000	서영숙	10,000		
서동호 신부	20,000	서효식	30,000	심재임	20,000	안 동 신 협	
안영배 신부	10,000	송은옥	10,000	이순연	20,000	100,000	
윤성규 신부	20,000	신옥선	10,000	정은순	50,000		
정양모 신부	100,000	신용찬	50,000	최금주	50,000	은총의 거울 Pr	
정철환 신부	10,000	안명숙	20,000			25,000	
김정란	20,000	안안택	10,000	이 길 선 편			
박정렬	20,000	위은숙	10,000	강명희	5,000	정의의 거울 Pr	
서영림	10,000	유병현	10,000	권순옥	10,000	20,000	
신동섭	10,000	이귀호	10,000	김중향	5,000		
이가엘	10,000	이임영	30,000	김지은	10,000		
		이정숙	20,000	나양수	30,000		
타교구 개인		이정아	20,000	박영신	10,000		
강윤순	10,000	이호숙	10,000	백형숙	10,000		

입금계좌안내 - 예금주 : 천주교안동교구 * 입금자명을 꼭 적어주세요!!

(농협) 733-01-254416

(기업) 160-000175-04-194

(신협) 09035-12-001948

(신한) 140-005-570052

(우체국) 703439-01-004207

(지로) 7519989

*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054-858-3114-5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아멘.
 저에게 당신 베풀어 주소서.
 제 고통 열어 주소서, 제 편에 힘을 주소서.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당신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당신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를 만난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저 곁 끝에서 당신은 제게 손을 내밀고 계시겠지요.
 하오나 주님,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돌아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나요?
 권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으십니다.
 구해달라, '구해달라', '구해달라' 보여도 당신을
 죽음에 이르른 것은 원망이라고 했나요?
 희망 없는 것은 희망이라 말하지만 제 마음은 울물 어물뿐입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환절기 혈조차 스며들지 않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물사 죽아가는 자의 몸뿐입니다.
 주님,
 죽어야만 하는 판, 조짐 없이 흐릿한 두 눈.

희망을 잃어버린 이의 기도

※ **역지사지(易地思之) 기도문입니다.** 거꾸로 된 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